

# 메주고리에



Medjugorje

March, 2007 제37호



평화의 모우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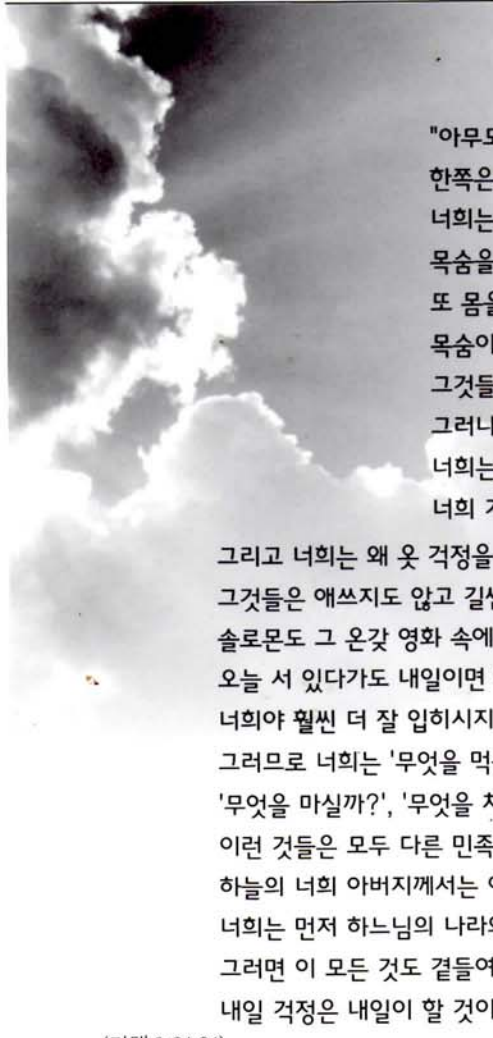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사순 시기에 하느님의 자비에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천상 아버지께서는 너의 모두를 죄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이 시기를 잘 활용하고, 고해성사 중에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그분의 피로 너희 모두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를 행하면 너희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의 자유는 미약한 것임을 잊지 말고 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 따르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서 고맙다."

2007년 2월 25일 메시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태 6:24-34)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내적 메시지를 받는 엘리나는 성모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성체 앞에서 이 복음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 하느님이나, 재물이나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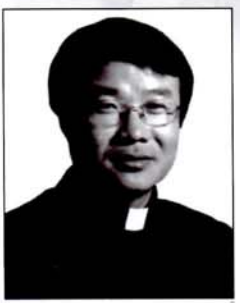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과 모든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박문시놀님과 조민현신부님, 두 딸의 미래를 봉헌합니다.
- 예수님, 체리힐본당과 공동체를 봉헌하오니 축복하여 주소서.
- 딸 로사를 위하여, 남편의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주님께 돌아 온 딸과 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 은총을 주세요.
- 파킨슨씨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편을 위하여 은총을 간구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의 가정과 모든 기도 지향들을 봉헌합니다.
- 저희 가정이 영육간에 건강한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남편 김항고가 세례를 받아 성모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 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모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 Lee, Family와 손레지나, 사업체의 발전과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 Park, Family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 남편에게 영육간에 건강주시며, 두 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수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성소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세상에 평화와 사랑의 빛이 골고루 비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 이데레사의 가정에 건강과 주님의 약속이 하루 빨리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 친정아버지의 영원한 안식과 주님의 예쁜 딸 조셉핀의 영육간의 평화를 빕니다.
- 부모에게 버림 받아 태어나지 못한 낙태아들과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시아주머니 내외분과 사랑하는 아가씨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 성모님, Robert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꾼이 되게 교회로 불러 주세요.
- 성모님, 두 아들의 화해와 큰아들 가정의 치유, 손녀딸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박라파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33일 봉헌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봉헌하오니 그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 성모님, 저의 모든 삶과 기도가 필요한 은인들, 형제들을 성모님께 봉헌 드립니다.
- 성모님, 이미카엘, 엘리사벳을 성모님께 봉헌하오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어 신앙안에 밝게 성장하여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 성장 하도록 도와주소서.
- 한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생을 마감하신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보살핌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 저의 5남매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성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일치되는 굳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 예수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가정과 학업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미사 때와 메주교리에 순례 때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1999년 5월 나는 유학을 떠나기 위해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5년 목표로 석, 박사를 마치고 돌아오겠다고는 결심으로 한국을 떠났다. 사실 나는 박사 학위를 받고 후학들을 양성하여 좋은 사제들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것이 앞으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날아갔던 미국. 바로 그 미국에서 설정한 목표를 거의 달성했을 시점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나에게 대한 하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두 번째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현재 나와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남 그레고리오 회장으로 부터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홈페이지 제작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월 18일, 나는 별 생각 없이 홈페이지 제작 회의에 참가했다. 그날 회의 주제는 당연히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 중반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했다.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평화의 모후의 메시지를 전할 단체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했고, 그 자리에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탄생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앞으로 성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 참가자 전원이 나를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로 추대했고, 머

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음으로는 거부하지 못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해야 했다. 그 회의가 있고 나서 이들이 지난 20일 꿈에 성모님을 뵈은 가운데 성모님께서 몸소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만드셨고, 나를 지도신부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아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성모 신심도 부족했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곧 바로 돌아갈 처지였는데 왜 성모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부르셨는지 여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오직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을 의탁하기로 결심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의 봉헌을 받아들이셨고, 나를 빛으로 삼아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성모님의 도구가 된 다음 메주고리에 신부, 성모님께 미친 신부라는 별명을 얻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주고리에 성모님, 평화의 모후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행복한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 주변의 사제들과 신자들이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현이 교회의 공인을 받지 않았다는 악의적인 언어로 나와 선교회를 공격해왔고, 더욱이 유학생 신분으로 사목적인 일에 개입한다고 해서 박해받는 상황까지 맞이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성모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분을 위해 내가 마셔야 할 잔이었기에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어머니의 도움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었다.

2003년 성모님께서는 여러 계시적인 사건들을 통해 나와 우리 선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미국에서 제2의 메주고리예와 같은 장소를 만드는 일이었다. 성모님께서는 빈손이었던 우리를 통해 기적적으로 큰 땅을 마련하게 하셨고, 그곳을 '어머니 마을'로 이름 짓게 하셨다. 그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구에 청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2004년 5월 22일 뉴욕 포담 대학에서 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즉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서울 대교구 옥수동 성당 주임신부로 사목을 시작했다. 물론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면서 말이다.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을 떠나기 전 어느 신자를 통해 들었던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신부님, 성모님께서는 한국에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신부님께서 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고 나면 신부님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통해 한국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선, 메주고리예와 평화의 모후의 메시지를 알리는 일이었다. 비록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지 않은 한국의 사제들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통해 깊은 회개와 신앙 체험을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에 누군가 깃발을 들고 메주고리예 정신과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성모님께서 나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셨고, 나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평화의 모후의 아들 사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 사명은 성시간을 통하여 성체 안에 살아계



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었다. 1981년 6월 24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예에서 매일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 평화의 모후께서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우리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 지상에 임한 천국인 미사와 성체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미사와 성시간을 강조하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계절은 특별히 이 본당 신자들을 위한 시기임을 말해 주고 싶다. 여름에는 할 일이 무척 많다고 하지만, 이제는 들에 일거리가 없다. 너희 자신을 위해 일하여라! 이 시기는 너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니 거룩한 미사에 나오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 주고 싶어서, 궂은 날씨에도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너희가 미사에 참례함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5년 11월 21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한 미사가 너희 삶이 되게 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 너희 가운데 미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마지못해 미사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미사 때 너희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거룩한 미사에 온 마음으로 참례하여,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라. 사랑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례하고, 그 미사가 바로 너희 자신의 미사가 되게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86년 4월 3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밤도 여기에 와 주어서 특별히 감사하고 싶다. 제대 위에 지극히 복된 성사를 끊임없이 흠송하여야. 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흠송할 때

언제나 함께 있다. 그 시간에, 너희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 (1984년 3월 15일)

메주고리에 순례를 통해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전례헌장 10항)라고 천명한 제2차 바티칸 공회회의 선언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한 사제인 나에게 이 세상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 성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말씀대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끊임 없이 흠송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기만 하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미사를 봉헌하려고 노력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옥수동 성당에서 메주고리에의 야고보 본당과 같은 성시간을 봉헌했다. 이미 성모님께서 오래 전부터 옥수동 성당과 인근 본당에서 준비시키신 음악봉사자들로 구성된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과 함께 성체 현시, 기도, 침묵, 음악, 성체 거동, 그리고 성체 강복으로 이루어진 성시간을 봉헌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메주고리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성시간은 전통적인 성시간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현대의 신자들이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사제의 기도와 영혼을 울리는 음악, 신자들 사이를 오가며 행해지는 성체 거동과 강복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께 인도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어오심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생명의 인도자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흠송하고 찬미하는 일보다 더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안 옥수동 성당 성시간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졌고,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맛보았으며,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성시간을 시작하거나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족한 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메주고리에의 성시간을 소개하여 여러 사제들과 신자들이 좀 더 깊이 성체를 흠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81년 지구 반대편 메주고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서울 혜화동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1990년 서울 대교구 소속 사제로 서품되고, 2003년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도구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제 2년 8개월간의 옥수동 성당 주임신부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올 8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게 된다. 목주기도도 하지 않던 신부에서 성모님의 사제로, 교구 사제에서 수도회 사제로 이동하는 가운데 모든 키는 성모님이 가지고 계셨다. 이제 성모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먼 길을 떠난다. 마치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낯설기만 하고, 장차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난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또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먼 길을 떠나기로 마음 결정했을 때,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교구 사제로서 한국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왜 이곳을 떠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좀 더 깊은 침묵과 내적 고요 속에서 기도에 전념하며 나를 온전히 봉헌해야 하는 때라고 느낀다. 모든 일은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시는 법이기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 시려고 하는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에 품는 것이다.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어머니, 저는 죄인이고, 당신께 대한 사랑과 신심도 약하고 부족한데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그런 나에게 성모님은 1973년 7월 16일 스테파노 곱비 신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곤 한다.

"나의 이 '운동'을 전파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적당하고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너는 그런 너를 내가 왜 택했는지 까닭을 알고 싶어 한다. 너의 하찮음과 나약함을 입증하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너는 내게 묻는다. '왜 저보다 더 적당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제 불충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저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들이야, 가장 적합하지 않는 도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를 택한 거다. 그래야 이 일을 너의 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닌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드러낼 작정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5P. **M**

## 너희의 해방이 다가왔다

79. 3. 9 사순절 둘째 금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함께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들을 살펴보아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너희는 이 천상 엄마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 나와 함께 너희 시대를 바라보면, 내가 특별히 개입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여러 표지들이 눈에 뜨일 것이다. 나무 가지에 새 순(荀)이 돋으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정화를 위한 고난이 극에 달한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겨울의 표징들을 지적해 주었다. 겉보기에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원수'의 타격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아직 온통 상처투성이요, 암흑에 싸여 있는 것이다. 원수는 자신이 교회를 정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혼란을 일으켜 교회의 많은 진리들을 뒤엎었고, 규율 부재를 야기(惹起)하여 무질서가 확산되게 했으며, 분열을 일으켜 교회의 내적 일치를 공격했고, 간교하고 은밀한 박해로 교회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았으니, 자신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더없이 혹독한 이 교회의 겨울에도, 벌써 새로워진 생명의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 너희 해방의 때가 다가왔다고 일러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티없는 내 성심의 개선이라는 새 봄이 바야흐로 교회에 오려 한다. 같은 교회지만 새롭고 밝은 교회, 정화의 고난으로 더욱 겸손하고 굳건하며 더욱 가난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내 아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교회'에서 만민에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으로 새로운 '빛의 교회'가 되리니, 지금 벌써 그 가지에서 돌아나는 많은 새싹들을 볼 수 있다. 이 새싹이 바로 천상 엄마에게 자신을 내맡긴 모든 사람들이며, 티없는 내 성심의 사도들인 너희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렇다. 내 조그만 아기들인 너희 모두가 새싹들이다.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고, 바로 나 자신의 정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인 너희가 새싹들이다. 세상과 자아를 경멸하면서 가난과 겸손, 침묵과 기도와 극기, 이웃 사랑과 하느님과 의 일치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한편,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바라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는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비취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내 아들들임을 만인 앞에 드러내 보여라. 믿음이 이 암흑기의 너희를 밝혀 주는 빛이 되고, 내 아들 예수님의 영예와 영광을 생각하는 열성만이 너희를 사르는 불이 되기 바란다. 싸워라!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한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희 뒤를 따라 내 군대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더없이 혹독한 이 겨울에, 너희야말로 티없는 내 성심에서 돌아나는 새싹들이다. 이 새싹들을 나는 교회의 가지에서 자라게 한다. 지극히 아름다운 봄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는 새로운 '성령 강림'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내 눈으로 바라보아라. 꾸준히 기도하고 고통을 참아 받으며, 늘 희망을 굳게 지녀라. 너희 해방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부터 1997까지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윤 종식 디모데오/ 의정부 교구/

전례학 박사 과정 로마유학/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교회의 전례 중, 연중과 사순, 그리고 부활 시기로 이어지는 2월에서 4월에는 성모님과 관련 되어 주의 봉헌 축일(2월2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2월11일), 그리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25일)이 있습니다.

주의 봉헌 축일 (2월 2일) 이 날은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성탄과 공현 축일을 마감하는 축일로 지냅니다.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 덧붙여졌고 6세기에 시리아에 널리 퍼지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의로운 사람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에서 Ypapanti(만남)라는 이름으로 이 축일을 받아들였습니다. 8세기 중반 프랑크 지방에서는 이 날을 "성모 취결례(정화) 축일"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전례는 이 축일 이름을 "주의 봉헌"으로 바꾸었고 이 축칭은 1969년의 로마 전례력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초 강복은 10세기가 되어서야 독일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봉헌 축일 전례는 초를 강복한 다음 초를 들고 행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행렬이 기념하는 바는 성전에서 예수님과 시메온의 만남을 기억하여, 주님을 영광 중에 최종적으로 만날 것을 기다리며 빵을 나누는 예식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줍니다. (루카 2,22-38)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어 찢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5)'라는 시메온의 예언은 마리아에게 아드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동안 지나야 할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 즉 오해와 고통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제2의 영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메온의 예언은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해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께서 고통 받으시는 구세주 곁에서 함께 고통 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과, 마리아의 어머니 역할은 신비스럽고 비참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줍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16항)라고 가르쳐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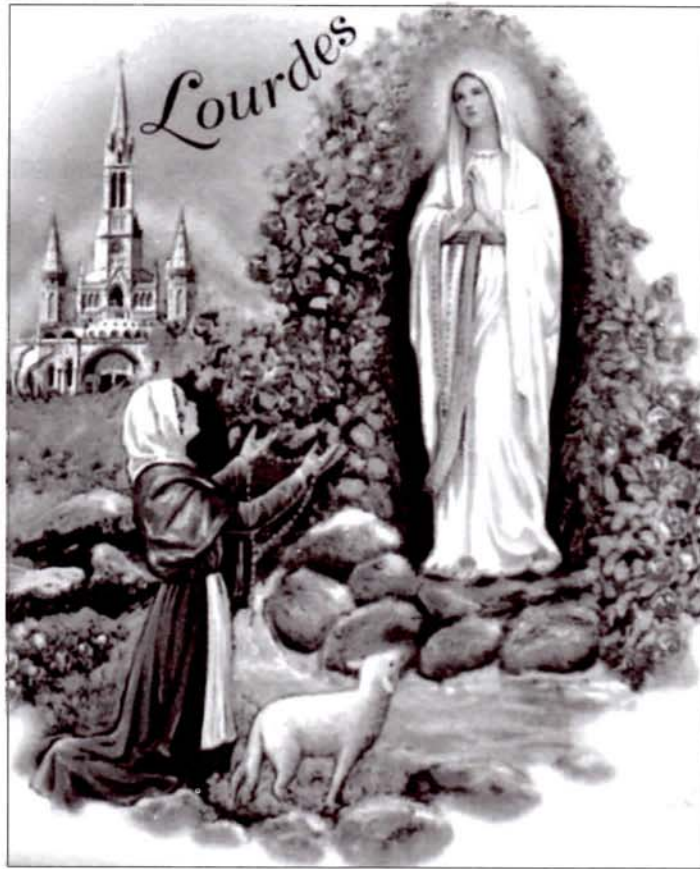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2월11일)'은 1854년 비오 9세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장엄하게 교의로 선포 4년 후 1858년 2월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동정녀 마리아께서 열 네 살 소녀인 벨라렛다에게 루르드 동굴 근처에서 18번에 걸쳐 발현하셔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사람이다.'라고 당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발현 후 32년이 지난 1890년 레오 13세는 프랑스의 타르브 교구와 다른 교구들에게 2월 11일에 원죄 없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발현 축일을 지내도록 인가했습니다.

1907년 11월13일 비오 10세의 예식성 교령으로 이 축일은 라틴 교회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성모 발현 50주년을 맞이한 1908년 지역주교는 "동정녀께서 참으로 벨라렛다 수비루에게 발현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이 축일을 '선택 기념'으로 축소하고, 또한 "축일의 대상은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모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축일의 명칭을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축일에는 이사야 66, 10-14과 요한 2, 1-11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가나의 '표징'에서 마리아는 두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셨을 때 마리아께서는 신랑 신부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연민의 정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야 할



잉태되는 순간부터 은총을 받은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는  
사람들의 불행에서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으시다

일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드님의 대답에 문제를 삼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뛰어난 믿음을 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은총을 받은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는 사람들의 불행에서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모든 것을 맡긴 루르드의 동정녀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되풀이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지기를 바랍니다."(화답송)라고 응답할 때, 본래의 소명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하나로 묶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은총을 받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마리아는 인류의 물질적, 영적으로 곤궁하고 불쌍한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께 인도하는 것을 지쳐 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모든 것을 맡긴 루르드의 동정녀께서는 가나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되풀이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는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M**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월25일)'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녀를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3월25일일까요? 기간으로 따지면 12월 25일과 연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 서방의 일력 계산자들은 춘분과 만월이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3월 25일에 유일무이한 역사, 구원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7세기부터 로마에서 기념하여 지냈고, 1969년의 전례력에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영보'라는 명칭을 '주님 탄생 예고'로 바꾸어 이 축일이 특히 그리스도의 축일임을 더 잘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예고 되시고 동정녀 안에서 온 인류에게 예고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는 그분의 몸, 곧 교회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나아갑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모 마리아와 같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가톨릭 교회의 전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마에서 전례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신 윤종식 신부님이 연재해주실 "전례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모 마리아"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밀접한 관계는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큰 은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지면을 통하여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 고리에'가 독자들과 가톨릭 교회와 성모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충실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사명을 새롭게 해봅니다. 늘 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 해주시는 윤 종식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남 흥익 그레고리오 본지 편집인 -

## 죄의 용서와 잠벌의 차이

윤 종식 디모데오/ 의정부 교구/  
전례학 박사 과정 로마유학/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개신교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세기 시대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받고 팔았던 비난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세기 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팔았었나요? 혹시 그랬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시카고의 엘리사벳 -

우선, 용어를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에 의해서 지적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대사 거래'였습니다. 이 '대사(大赦, indulgentia)'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면죄부'로 잘못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면죄부'는 마치 죄 자체의 사함을 받는 증서라고 생각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인 '대사'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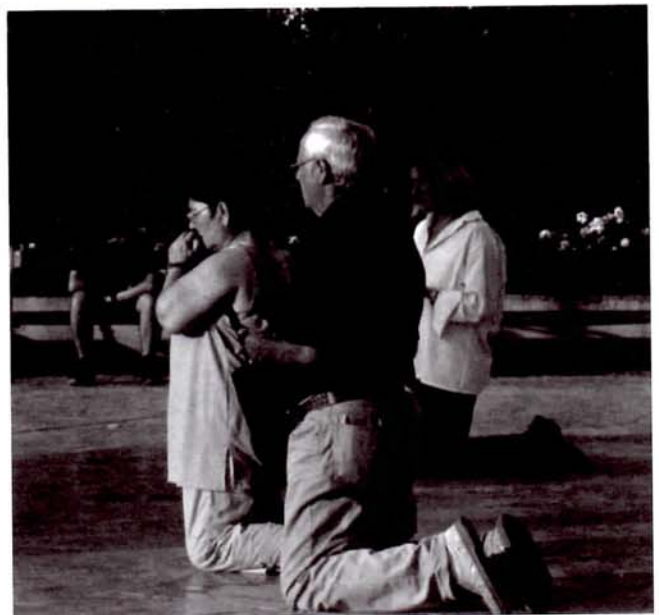
루터가 1517년 테첼의 대사(大赦) 거래를 반대하였을 때, 그는 교회의 순수한 가르침의 대변자로서 거룩한 것들을 정말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남용을 반대했습니다. 즉, '대사' 자체는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일부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받는 거래의 한 상품처럼 남용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사'는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Indulgentia라는 라틴어는 '관대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교회에서 '죄에 따른 잠벌을 사해주는 고유 용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 받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에 따른 벌, 즉 잠벌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잠벌을 면제해주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대사의 신학적 근

거를 찾습니다. 대사의 효과는 지상교회의 신자들뿐 아니라, 천상교회, 즉 연옥 영혼들의 잠벌까지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사 제도는 초대교회의 박해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죄인은 대죄 - 살인, 배교, 간음 등 - 를 지은 사람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기간을 거친 뒤에 벌을 사면받았으나, 박해기간에 주교들이 특별히 속죄기간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중세 초에는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이 생겼고, 속죄규정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사를 받으려면 우선,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욕망을 자제해야 합니다. 1) 고해성사와 영성체, 2) 교회가 정한 성지나 성지순례, 3)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사는 보통 회년에 이루어집니다. 교황님이 정해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대사는 벌의 사면에는 효과가 있지만 죄 자체의 사면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M



##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캘거터의 마더 데레사

성체를 영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빵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고하며 일할 때 우리는 인간의 몸과 피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영할 때에나 힘든 일을 할 때에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빛이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분을 아는 은총,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 그분을 섬기려는 용기를 주시라고 그분께 청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분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모든 순간, 특히 감실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나요? 성체성사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영성체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밤낮으로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매일 한 시간씩 성체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서로의 사랑은 더욱 넓어지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더욱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듣고 또한 그분께 대한 우리의 갈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자,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사랑을 향한 당신의 허기를 우리가 채워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허기진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바라시는 그분의 허기를 채워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께 자신을 내맡겨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하여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가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야 하던 때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을 돌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음식이 떨어진 때도 없었고, 침대나 다른 것들이 모자라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되돌려 보내야 했던 사람은 5만 3천 명의 나환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월급도, 정기적인 수입도, 그 밖의 다른 어떤 수입도 없지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느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돕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수차 약속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당신 약속에 충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뢰심을 지니도록 복돋아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내맡기라고 당부합니다.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하느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짊어지기로 하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어찌 당신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들과 꽃들까지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외쳐대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시고, 씨앗을 뿌리거나 곡식을 거두어들이거나 저장도 하지 않는 새들을 먹이시며, 들의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느님이실진대, 하물며 당신의 모습을 닮게 만드시고 당신의 양자 양녀로 삼으신 사람들이라면야 얼마나 더 잘 보살피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자녀답게 살면서 그분 계명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업체가 되지 않고 그저 사랑의 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밖의 모든 것을 더불어 얻게 될 것입니다. **M**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 주일은 하느님께 봉헌된 날입니다!

사브리나 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신부님은 가족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큰 누님의 이름은 로세라인데 가족들은 누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요조 신부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 결혼하는 누나와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셨군요. 누나는 지금 어디에 사시나요?**

우리 옆 마을에 살아요. 누님이 결혼하신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를 버리고 큰 누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구, 하느님, 저, 무척 힘들었다구요! (웃음)

**그 후에 신부님의 유년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형제가 있으셨나요?**

베로니카와 까따 누님이지요. 참 착하신 분들인데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강제노동을 하며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었어요.

**신부님, 강제노역이라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누나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매일 강제노동을 해야 했어요. 검사관이 현장에 찾아와서 저울로 그날의 담배생산량을 달아 보고 생산량이 미달되었으면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생산량을 달성해야 일당을 주는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였어요. 냉혈인간들이었죠.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 생각조차 하기 싫군요... 여동생 파비아나와 막내 여동생 니콜라와 큰 누님과 28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열 두 살 된 여동생 니콜라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어요. 그때 가족들은 모두 큰 쇼크를 받았어요.

**사제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

**신부님께서 언제 처음으로 사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 가족들은 사제로 부름 받는 것은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성소라고 생각했어요. 사제성소는 그 어떤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상이었습시다. 우리들은 사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존경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저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사제로서의 성소를 느꼈는데, 저를 부르시는 분의 위대함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을 수가 없었지만, 사제는 항상 공부를 많이 한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스타에는 프란치스코회 학부가 있었고 인쇄소도 있었으며 박식하신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성소에 응답한 비토르의 형님은 1945년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시로키부리에 수도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순교자들을 적으로 가르치고 모독했지만, 저희 어린 아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의 증거를 남기시고 순교하신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하신 신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으로부터 들을 때마다, 저희 어린이들은 숙연한 자세로 들으면서 그분들의 길을 뒤따라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많은 어린이들이 사제가 되고 싶어했고, 저도 브라츠(Brac) 크로아티아의 스플릿 동남쪽에 위치한 달마시안 해변의 섬에 있는 도미니꼬회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공산정부가 모든 부동산을 압수한 후여서 학교나 신학교 등의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도미니꼬회나 저처럼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소신학교 커리큘럼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모두 똑같았어요.

### 신부님께서 11살 때 신부가 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오,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힘들거야.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어쩌다 신학교 생활이 싫증 날 때도 있을 거란다. 그래도 너는 축복을 받았으니 네가 하는 희생이 교회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지." 아버지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유혹이 올 것이니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너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동안 늘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께 배우셨군요.

그래요, 백 퍼센트죠! 저희 형제들은 희생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에 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제가 부르심에 충실한 모범적인 신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성소를 지켜왔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확신 때문이라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우리 어머니 교회"라고 사제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저에게는 그분들의 말씀과 삶의 모범이 큰 의미를 지닌 진실이자 존재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충고와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충실히 따르려고 했으니까요. 한 예를 든다면 저는 교황 성하를 제 아버님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제 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입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선종하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교회가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교황 성하는 제게 무척 중요한 분입니다. 교황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굳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제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말할 때는 당연히 이런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신부님께서 생각하는 부모들의 올바른 신앙과 삶은 무엇인가요?

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교육학자들처럼 분석하기를 즐겨하며 부모들을 "아주 작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분들의 영향을 강하게 느낍니다. 어머니의 선하심과 부드러운 미소는 잊을 수 없지요.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무척 신뢰했는데 그분은 놀랄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셨고, 저도 성경을 사랑합니다. 어린 제가 본 아버지는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항상 기도로 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병들어 누워계실 때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는 하던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향한 사랑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군요.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저는 늘 이렇게 말해 왔어요. "과연 누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부모는 위대한 사명가입니다. 주일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 저는 사제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고 열심히 가르쳐도 엄마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날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 반복하곤 했습니다. "일이 밀려서 엉망이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지! 절대로 주일날은 일하러 가지 않겠어. 하느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것이니까." 주일은 분명히 하느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주일을 대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와 하느님, 성사들 등... 이런 모든 가치들은 부모님께 배운 것들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부모로서 보아야 하는 모범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M**



## 예수님의 수난과 어머니 마리아



오, 나의 아들 예수여...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들은 극도로 잔인하고 야만스럽게 양손을 무자비하게 동여매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다루듯이 하였다. 제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울부짖고 탄식했다. 가야파는 격노하여 물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형용할 길 없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가야파는 마치 지옥의 사주를 받은 듯, 칼로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선고했다.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빌라도는 피에 굶주린 듯한 군중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내어주며 그들이 만족하길 바랐다. 요한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했다. "선생님, 제가 왜 떠나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서둘러 재판정을 빠져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갔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모두 6명이었는데 이집트 변방에서 온 악당들이었다. 이 야만인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기둥으로 질질 끌고 가서 두 손을 묶으며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리고 땅바닥에 던져버리다시피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시더니, 얼굴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 보셨다. 성모님은 피투성이가 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시

선과 마주치자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며 온몸의 힘이 빠져 거의 실신상태가 되었다. 야만인들은 예수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발이 딱 묶여지도록 예수님의 온몸을 아래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눌렀다. 갑자기 쉬익하는 채찍질 소리가 죽음을 재촉하는 반주처럼 울렸다. 예수님의 몸은 순식간에 검푸른 줄무늬가 뒤덮히더니 피멍이 들면서 거룩한 성혈이 사방으로 튀어 순식간에 바닥을 적셨다.

두 번째 집행관들이 날카로운 가시와 매듭과 돌기가 있는 거친 채찍으로 더욱 더 극악무도하게 예수님의 몸을 채찍질하기 시작하자 바닥은 예수님의 몸에서 흐른 피로 흥건했다. 마지막으로 교체되어온 두 명의 새로운 집행관이 작은 쇠사슬과 쇠갈고리가 잔뜩 달린 가죽 끈으로 예수님을 내리칠 때는 뺨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채찍 때문에 살점이 커다랗게 떨어져 나갔다. 오, 누가 그 끔찍하고 무자비한 광경을 묘사할 수 있으랴! 그 야만인들은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예수님의 허리와 겨드랑이 밑과 무릎 위에 밧줄을 두르고 다시 한 번 그분의 손을 기둥 꼭대기 쇠고리에 단단히 묶어 매달았다. 그들이 다시 채찍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몸을 내리치자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그분의 몸은 하나의 큰 상처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복되신 동정녀는 아드님 성자께서 45분 동안 끔찍하게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시며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실 때 표현할 길 없는 사랑과 비탄에 젖어 흘리시는 눈물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채찍질이 끝나

자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기 위해 겔옷자락을 집어서 눈에 가득 고인 피를 닦아내셨다. 당신을 향해 손을 내뻗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묶었던 밧줄이 마침내 끊어지고 예수님은 바닥을 적신 핏속에 무너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예수님께서 살점이 떨어져나가 피투성이가 된 맨몸을 가리려고 피가 흥건하게 고인 바닥에서 겔옷을 찾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때리면서 옷을 걷어차면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 함께 고통받고 계신 어머니는 손을 뻗으며 피에 젖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의 성혈을 닦는 성모님

채찍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복되신 동정녀와 막달레나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던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얼룩진 예수님의 성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천으로 닦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이 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강렬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어머니여."라고 인사를 하면 성모님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시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릎까지 닿는 낡은 붉은 색 겔옷을 걸쳐주고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관을 머리에 얹자 피가 흘러 그분의 눈에 가득 고였다. 어깨 위에는 붉은 망토를 걸치고 가시관을 머리 위에 쓴 그분의 눈과 입과 수염은 모두 피범벅이 되었고, 몸은 오로지 선혈이 낭자한 상처투성이로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다. 오, 오, 예수, 나의 아들 예수...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후 발밑에 던져진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고, 세 번 입을 맞추셨다. 예수님의 맨발은 부어올라 피가 흐르고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질 듯 굽은 등과 온몸은 상처투성이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쇠약해지고 탈수와 열과 통증 때문에 생긴 갈증으로 목이 타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 하면서도 그분은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푸른빛이 도는 잿빛 옷으로 감싼 창백한 얼굴에 눈은 울어서 충혈되어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오직 하늘의 도우심을 간청하시듯이 두 손을 모으시며 요한에게 물으셨다.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내게 그분의 모습을 보고 견뎌낼 만큼 용기가 있을까?" 요한이 대답했다. "오늘 그분을 보시지 않으면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자 복되신 동정녀는 요한에게 당신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자고 말씀하셨다. 비틀거리시던 예수님이 무릎이 꺾이며 두 번째로 넘어지시자 마리아는 당신 아들을 에워싸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뚫고 나갔다. 마치 몸을 던지듯이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을 껴안을 때 가슴이 창에 뚫리는 아픔을 느끼며 절규하듯이 외쳤다. "오, 나의 아들이!" "어머니!"

#### 날카로운 못이 예수님 손의 근육과 인대를 찢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일곱 번 넘어지신 후에 처형장으로 끌려가신 때는 11시 45분경이었다. 골고타 언덕의 처형장, 십자가 언덕, 그녀 앞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끔찍한 십자가 나무, 망치, 밧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무시무시한 못들! 온 사방에 저주를 퍼부으며 준비를 하는 술 취한 야만스런 집행관들의 모습은 십자가 말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을 더욱 크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께는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었으랴! 수난의 이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밀치고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가시관을 벗겼다. 그들이 잠시도 지탱할 수가 없는 듯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예수님의 어깨와 등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쉴 새 없이 채찍으로 내리치자 온 몸이 찢어졌다. 집행관들이 예수님



을 땅바닥에 있는 십자가 위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며 팔다리를 잡아당겨 길이를 표시했다. 두 명의 집행관이 그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걸쳐주었던 망토를 찢었다. 그들이 상처와 채찍 자국으로 뒤덮여 피가 엉겨 붙어있는 예수님의 속옷을 찢자 복되신 어머니가 자신의 베일을 뜯어 내밀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몸을 가리셨다.

집행관들은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못 구멍까지 예수님의 오른팔을 거칠게 끌어당겨 팔목을 단단히 붙들어 댔다. 그들 중의 한 명이 쌓여있는 꺾은 못들 중에서 유난히 날카롭고 굵은 못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놓고 쇠망치로 내리치자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못이 좁은 구멍에 들어가면서 손의 근육과 인대가 찢어지며 피가 튀어 집행관의 몸에 묻었다. 고통스런 외침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자 복되신 동정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흐느껴 울고 또 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손에 박힌 못을 쳐다보고 몸을 떠셨다. 오른손을 못 박은 집행관은 십자가에 묶여 있는 예수님의 왼손이 못 구멍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손가락 끝에서 족히 5센티는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팔을 십자가에서 풀고 팔에 밧줄을 감아 발로 십자가를 밟아 손이 그 구멍에 닿을 때까지 거칠게 잡아당겼다. 두 팔이 찢어지듯이 관절에서 빠져 나왔다. 그분의 어깨는 움푹 파이고 팔꿈치에서 탈골된 뼈가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팔과 가슴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팔을 십자가 나무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망치로 두 번째 못을 왼손에 박았다. 예수님의 몸이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부림칠 때 비참한 외침이 망치질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녀의 얼굴은 마치 시체처럼 창백해지면서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참아내시듯이 신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집행관들은 십자가 나무에 판 구멍 위치가 잘못되어 예수님의 발이 그곳에 닿지 않자 "스스로 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와주지!" 하며 다리에 밧줄을 묶고 예수님의 발을 밑까지 잡아당겨서 단단히 묶었다. 예수님의 몸은 사지가 난폭하게 잡아당겨지고 근육과 피부도 비참

하게 당겨져서 가슴의 갈비뼈를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끔찍했다. 온 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울긋불긋하게 피부가 벗겨진 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다. 그분은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오, 하느님! 오, 나의 하느님!" 악당들이 예수님의 배를 잡아당기자 갈비뼈가 가슴에서 우지직하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다시 폭력을 써서 왼발을 잡아당겨 오른발 위에 놓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발판 위에서 왼발이 오른발 위에 잘 놓이지 않자 왼 발등에 가늘고 머리가 납작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다른 못보다 훨씬 더 길어서 못 중에서 가장 끔찍하게 보이는 것을 골라서 아래 놓인 오른쪽 발과 왼 발등에 박았다. 큰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못이 예수님의 발을 뚫고 발판에 뚫어놓은 구멍 안에 박혔다. 발에 못 질하는 것은 온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내게 울려오는 너무나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의 외중에서도 나는 36번의 망치질을 셀 수 있었다.

#### 보아라, 이 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시계는 12시 15분쯤을 가리켰다. 밧줄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집행관들이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서 십자가는 무게가 한꺼번에 쏠리며 잡자기 아주 큰 소리와 함께 구멍 안에 박혔다. 그 충격으로 몸이 잠시 흔들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고 잡아당겨진 그분의 몸이 아래로 쳐지자 상처들이 모두 벌어지면서 피가 마구 흘러 넘쳤다. 십자가 위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는 낳은 자식보다 더 참된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러자 요한은 죽어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손하게 포옹했다. 세시가 되어갈 때,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 타니!" 그것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지극히 고통스런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십자가 밑으로 다가갔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점점 더 핏기를 잃고 창백해진 얼굴로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들어 놀라운 만큼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늘을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고개가 밑으로 숙여지면서 숨을 거두셨다. 푸르게 변한 벌려진 입술 사이로 핏빛의 메마른 혀가 드러났다. 못에 뚫리는 고통으로 오므려져있던 손가락들이 퍼지고 앞쪽으로 구부러졌다. 예수님의 등은 십자가에 기대어져 있었으며 거룩한 몸의 모든 무게는 발밑으로 쏠려서 못에 박힌 두 발은 한쪽으로 구부러져 두 무릎이 베틀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각은 정각 오후 3시였다. 집행관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자, 후에 성 론지누스로 알려진 로마 병사들의 부지휘관 카시우스가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아주 맹렬하게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그 창은 창자를 지나 심장을 찌르고 그 끝이 왼쪽 가슴에까지 작은 상처를 냈다. 예수님께 시신을 고정시키고 있던 복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예수께서 창에 찔리

실 때 비탄의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로 달려갔다. 마리아는 당신 가슴이 창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셨다. 로마 병사들의 부지휘관 카시우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빼자 오른쪽의 큰 상처에서 붉은 피와 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위를 쳐다보고 있던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갑자기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서 정말 죽으셨으니 이제 그분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 그리하여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하시던 성모님은 죽음의 창백함으로 뒤덮인 얼굴로 몸이 휘청거리더니 쓰러지듯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서 숨이 멎춘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받아 안았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잃고, 지극히 비참한 모습으로 당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에 굴복해 있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잘못 사용하고 망가뜨린 그 자연의 질서에 의해 성모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귀중한 아들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부서지고 학대받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른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죽인 그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취했던 것이다. **M**

위의 내용은 바르톨로메오의 저서 'The Passion of Christ and His Mother'와 표중관 신부님 번역의 '예수님의 수난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상 칠언(七言)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는 이제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나를 따르고 나의 고통 중 한 몫을 너희가 차지하여라. 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자, 지금이 바로 이 세상이 구속(救贖)되는 순간이다. 나는 군중들의 조롱 섞인 구경거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대신 많은 영혼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지금 이 순간까지는 사형의 형틀인 이 십자가가 앞으로는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것이며 평화의 햇불이 되리라. 죄인들은 나의 거룩한 상처 때문에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나의 피는 모든 영혼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 없애줄 것이다. 순결한 영혼들은 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성혈로 갈증을 풀고, 나를 사랑하는 애정의 불길에 자신들을 태울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 안에 자리잡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겠노라."

**일 언(一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명을 주신 구세주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의 의노가 그들 머리 위로 내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의노 대신에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 주소서."

**이 언(二言)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나는 너희를 영원한 생명 세계로 인도하겠노라."

**삼 언(三言)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 나의 어머니시여, 제 형제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며 사랑해 주소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을 희생하였으니 너희는 혼자 외롭게 남겨진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언제든지 찾아가 뵈고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 나는 너희

를 나와 형제가 되는 사슬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친어머니를 너희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다."

**사 언(四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지금부터 너희 영혼들은 하느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여쭙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구속사업의 혜택으로 너희 영혼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형제가 되어 나와 함께 내 구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 언(五言) "목마르다."**

"오! 아버지! 당신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목이 타 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나이다. 이제 때가 이르렀나이다. 자가의 죽음이 실현되는 순간, 비로소 온 세상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현양할 것입니다.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에 사무쳐 심한 갈증을 느끼나이다. 이 목마름을 풀려고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모두 당신께 바쳤나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아뢰겠나이다."

**육 언(六言)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친아들을 죽음에 부치신 당신의 위대하신 섭리가 지금 완성되었나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당신 뜻대로 모두 이행하였나이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나이다."

**칠 언(七言)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당신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영혼들은 나처럼 자신 있게 하느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느님이시여, 제 영혼을 받아들이소서.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나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알려주어라.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해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내가 아니냐.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여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읽을 수 있게 하여라." **M**

(성심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 비오 12세 교황께서 직접 추천하신 책이며 1990년 교회인가를 받아 가톨릭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 편집자주)

#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 김훈 울리아노 옮김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 골로사이 3 : 5 - 10, 12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 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함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 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로마 13 : 12b - 13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묵상 기도 :

예수님! 당신은 저희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어 알몸으로 군중들 앞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처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항상 내일로 미루며 육체적,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한 몸에 못질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부정관념과 음행을 저지르며 자신들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쾌락 안에서 잠자는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내리시어 죄에 물들어 낡고 더러워진 제 영혼이 영원한 삶의 길을 걷게 해주소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시어 모든 악습과 쾌락, 분노, 원한, 시기질투, 탐욕에서 해방되게 하시어 제 영혼이 당신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곳을 찾은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께 청한 모든 은총을 모든 순례자들에게도 내려주시어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게 하소서.

성모님! 아드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여 맨몸으로 갓은 모욕을 당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셨는지 저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날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함과 선함, 순종과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사 주고 싶다. 그러면 너희는 나날이 더 아름답게 되고, 주님을 더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끌어 주고 싶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5. 10. 24)

성모님! 제 영혼은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면, 세상에 살면서 수북히 쌓인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오니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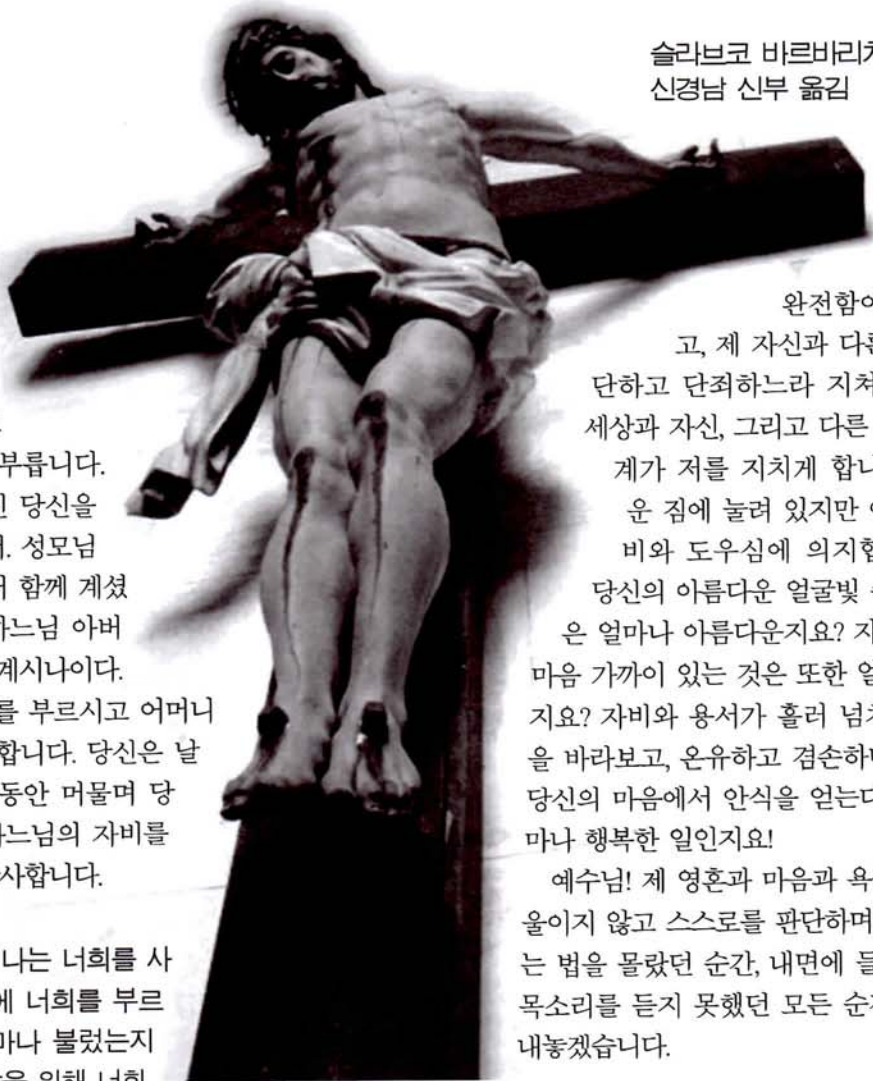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11 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예수님! 당신의 자비를 찬미하나이다

슬라브코 바르비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나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요 저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성모님을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은 자비로 가득하신 당신을 낳으셨으니 영광 받으소서. 성모님은 당신이 탄생한 순간부터 함께 계셨고, 저희 죄인들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인내를 알고 계시나이다. 성모님, 인내를 다해 저희를 부르시고 어머니로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저희를 찾아와 오랫동안 머물며 당신 아들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는지 헤아릴 수 없다. 나의 지향을 위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내가 너희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너희를 구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1987년 6월 25일)

예수님, 저는 모든 고통과 시련, 십자가와 저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 당신 앞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

피곤하기만 합니다. 저의 죄와 불완전함이 저를 괴롭히고,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를 지치게 합니다. 저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만 여전히 당신 자비와 도우심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빛 속에 잠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비로운 당신의 마음 가까이 있는 것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비와 용서가 흘러 넘치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토록 선한 당신의 마음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예수님! 제 영혼과 마음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몰랐던 순간, 내면에 들려오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죄를 지은 후 교만에 사로잡혀 당신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 들이거나 믿지 못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성체 안에 살아 계신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현존은 제가 당신께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표징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에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는 제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토대가 되었나이다. 예수님, 당신에게서 흘러 넘친 하느님의 자비가 당신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요! 성가정에는 참으로 선함, 사랑, 용서, 이해, 겸손이 흘러넘쳤나이다!

예수님,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들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서로 사랑하는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서로를 자애롭게 대하지 않는 가정, 서로 상처를 주며 존중하지 않는 가정, 자신의 불행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는 가정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그들의 눈을 열어 자비롭게 살아 가도록 도우심으로써 자애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찬미받으소서.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자비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와 착하고 자애로운 모든 사람 안에서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세상에 자비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자비로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잔인한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은지, 생명이 얼마나 쉽게 제 목숨을 잃고 있는지, 가정과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파괴되고 있는지, 젊은이들을 파멸로 이끄는 마약과 알코올과 비도덕적인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당신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력과 파괴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는지요!

예수님, 당신은 저희를 버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러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사람들을 죄인이라 판단하며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멸시하고 판단했나이다! 이제 그들 모두를 위해 당신의 자비를 청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와 가족, 친구와 친지, 아픈 사람과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이의 몸과 영혼 그리고 사람들과 국가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치유해주소서.

모든 이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당신은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에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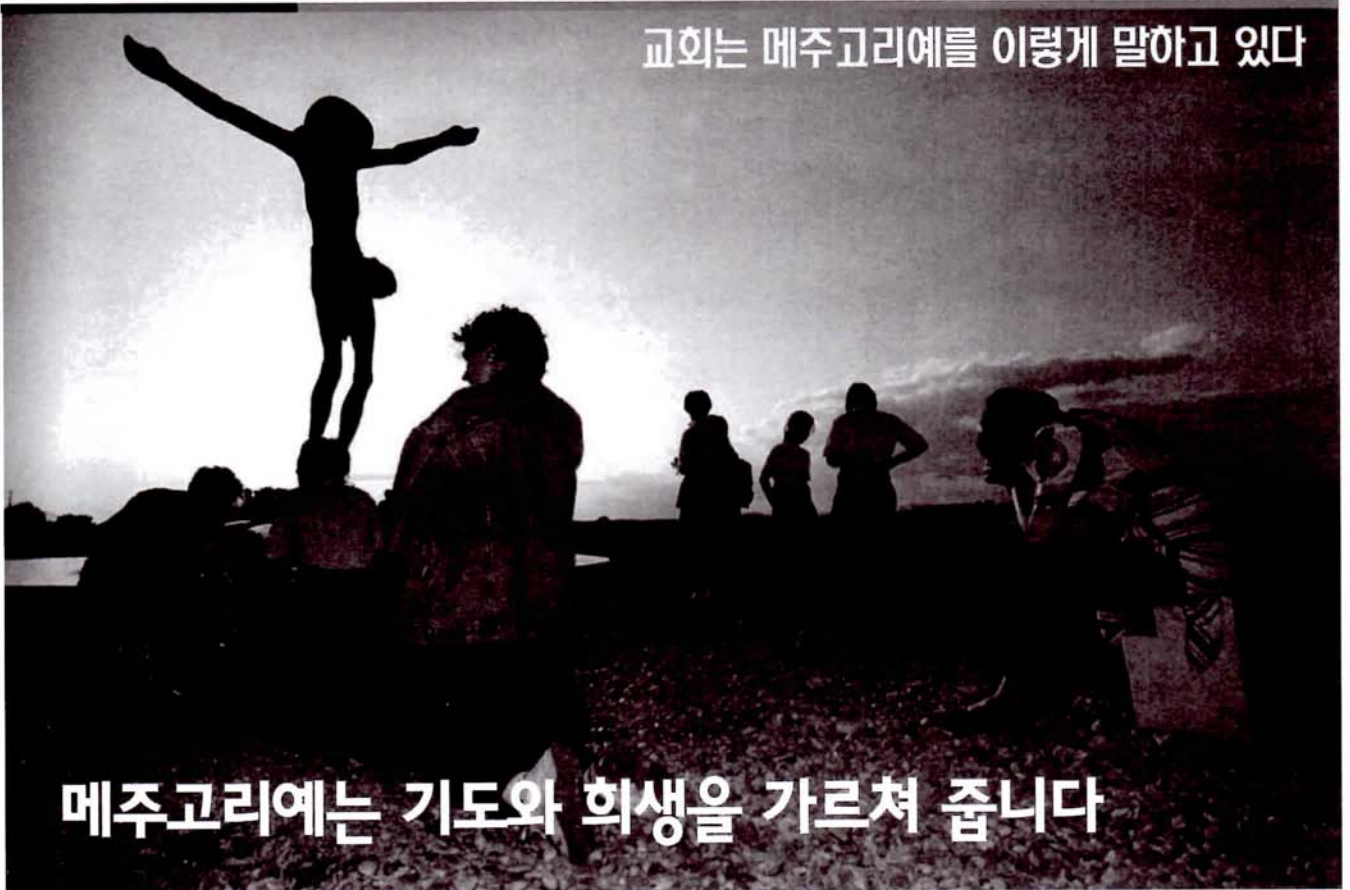
##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과 함께하는  
은혜와 치유의 성시간 안내



- 3월 16일(금) 19:00 서울 한남동 곧베틀알 수도원 마리아홀  
(주례: 신경남 신부) 문의:031-771-6134
- 3월 29일(목) 19:00 서울 옥수동 성당 (주례: 신경남 신부) 02-2298-6771
- 4월 12일(목) 19:00 서울 동작동 성당 (주례: 우대근 신부) 02-595-6961
- 4월 13일(금) 19:00 서울 마장동 성당 (주례: 박명근 신부) 02-2298-5521
- 5월 3일(목) 19:00 서울 동작동 성당 (주례: 신경남 신부) 02-595-6961
- 5월 4일(금) 19:00 서울 마장동 성당 (주례: 박명근 신부) 02-2298-5521
- 5월 10일(목) 20:00 서울 목5동 성당 (주례: 신경남 신부) 02-2644-1100
- 5월 17일(목) 20:00 하남 신장 성당 (주례: 신경남 신부) 031-794-7911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메주고리예는 기도와 희생을 가르쳐 줍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 교황청 소속 구마사제이시죠?

아모르트 신부 : 네, 저는 교황청 소속 구마사제이며 제가 설립한 국제 구마사제 협회 명예회장이며 2000년에는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기도 했지요. 주교님들은 75세가 되면 은퇴를 하시는데, 그때 저도 75세가 되면 은퇴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질문 : 우리가 자신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모르트 신부 : 먼저 '예방'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우리가 이러한 악들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신뢰하고 굳은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어떠한 주술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술이라면 기본으로 '마술, 마법', '강신술 혹은 심령술', 그리고 '악마주의(Satanism)'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동에 빠지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악에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죠.

질문 : 오늘날 이 세상에 끼치는 사탄의 영향력은 전과

어떻게 다르나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것을 통한 사탄의 활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모르트 신부 : 오늘날 사탄은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이 뜻은 그렇다고 과거보다 사탄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사탄에게 전보다 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뜻이지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신앙심을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건 무척이나 '산술적'인 것이죠. 신앙심이 쇠퇴하면 미신적인 요소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버리면 사실상 우리 자신의 문을 사탄에게 활짝 열어놓는 셈이죠. 의심할 여지없이 오늘날의 대중매체(음악, 영화, 방송, 문학 등등)의 행태는 사탄의 구미에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결여된 TV쇼라던가 폭력, 공포, 섹스를 소재로 하는 영화의 범람 현상이 그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예외로 치더라도,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마법이라던가 주술사, 점성술사 같은 것에 대한 인기를 높여 주어 많은 이들이 공공연히 그러한 것들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죠.

질문 : 구마 의식은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수단인가요? 아니면 최후의 수단인가요?

아모르트 신부 : 우리가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으뜸가는 수단인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신앙심 깊게 여러 가지 성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게끔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미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들 스스로 구마 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명백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마 의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때로는 어느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질문 :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에 관해서 말인데요. 성모님께서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생활로 초대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모르트 신부 : 예,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이탈리아의 잡지에 성모님께서 사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실을 기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무척 강하다는 것과 성모님의 계획을 파괴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기도, 기도하라'고 초대하셨지요.

질문 :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목주기도의 힘과 은총이 가득한 성사생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아모르트 신부 : 그래요. 기도의 힘은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메주고리가 파티마의 연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단식을 했다면,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결국 인류는 무서운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각 장소에 발현하실 때마다 당신이 발현하시는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루르드에서는 '원죄 없으신 잉태', 파티마에서는 '목주기도의 모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서는 '평화의 모후'라고 당신을 알려 주셨지요. 우리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초기 때 하늘에 'Mr, Mr, Mr(평화, 평화, 평화)'라고 쓰여져 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기도하는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먼저 평화를 이룩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죠.

질문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면 단식을 강조하시는데 현재의 교회 안에서는 단식이라는 단어가 좀 잊혀진 듯합니다. 그 분께서는 성서의 말씀과 단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을 무찌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모르트 신부 : 사실입니다. 파티마와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은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서 소비문화, 소비중심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류는 현재 어떻게 하면 희생이 없는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지에 골몰하고 그 결과 그들 스스로 악의 영향권 안으로 자신을 내어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분명 검소하고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도생활 잘하는 이들은 제외한다면 말이죠. 만약 절제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내하고 참을성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날 가정은 쉽사리 붕괴하고 타락해집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축하하긴 하지만 부부들은 너무도 빠르게 이혼을 택하곤 하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삶을 살아가려면 각자 서로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 정신이 부족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과 클리닉 센터가 곳곳에 만연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아이들을 낳고, 가르치고, 기르겠다는 희생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가정이 쉽게 붕괴되는 으뜸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왜 희생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 스스로 희생을 하겠다는 자세로 살 때에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서 열린 열매들과 수확은 참으로 많습니까. 그곳을 통하여 변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이 세상에 내려왔다고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진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모르트 신부 : 물론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정말 마음을 다한 기도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심하였고 삶을 바꾸었지요. 메주고리에서 끼치는 영향은 무척 큼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영감을 얻고 감사할 정도로 충분히 말입니다. 저 또한 기도하러 단체로 온 분들을 이끈 적이 있었죠. 인원이 700명인가 750명인가 그랬는데, 한 날 오후 동안 메주고리에서 머물렀지요. 그들과 저는 성모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전 항상 그 말씀들을 복음서와 연관시켜 풀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판관인 '새로운 것'을 언급하신 적은 없기 때문이죠.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것

으로 초대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단체들은 전세계에 존재하는 저의 가족과도 같지요.

질문 : 메주고리에서 사탄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장소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모르트 신부 : 그럼요. 메주고리에는 사탄과 싸우는 중요한 '요새'입니다. 사탄은 메주고리에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며, 인생을 바꾸어 놓는지라 꽤나 싫어하죠.



질문 : 더 조언해주실 말씀은 없으시나요?

아모르트 신부 : 복음서에서 성모님에 대해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걸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곳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은 다시 한 번 복음서를 중시하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성체성사는 모든 메주고리예를 찾아 오는 순례자들의 중심인데, 그 이유는 성모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동정녀께서 여러분을 중재하시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가득히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 인터뷰를 마치면서... >>

다리오 도딕 신부 : 인터뷰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 신부님이 장수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

가톨릭 굿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Gabriele Amorth 신부는 교황청 소속 구마사제이며 2000년 이후로 국제 구마사제 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이 기사는 2002년 7월 신부가 메주고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다리오 도딕 Dario Dodig 신부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부 -





# 메주고리에는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장소입니다!

(발현목격자 미리아나의 증언 - 7 -)

미리아나는 6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서는 이후로는 그녀의 생일인 매년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아는 미리아나가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신다. 그녀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1991년 3월 18일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발현하셨던 일에 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리아나 : 그날 발현은 7 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한 해 전에 미국 오레곤주에 발현하셨을 때와 같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 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과 저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을 한 번씩 바쳤습니다. 두 번째의 주님의 기도는 온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하여 세 번째의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은 하느님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셨나요?

미리아나 : 성모님께서 특별히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누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 성모님 발현의 특별한 의미

질문 : 당신은 복되신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것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리아나 : 네, 그렇습니다.

질문 : 이 발현이 복되신 성모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마

지막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미리아나 : 네, 그것은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 : 왜 메주고리에의 발현이 성모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발현인가요?

미리아나 :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현이 어찌서 복되신 성모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마지막 발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비밀들이 모두 실현된 후에는 성모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혹시 복되신 성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슨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미리아나 : 아니요. 저는 복되신 성모님께서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지상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모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발현하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냐고 질문하신 신학자들이 계셨지만, 저 자신도 복되신 성모님의 그 말씀 안에 무슨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것이 이 지상에 오시는 마지막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비밀들이 실현된 이후에는 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미리아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들과 관련하여, 혹시 복되신 성모님께서 이것이 지상의 마지막 발현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미리아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저와 그리고 다른 목격증인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지상의 발현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설명할 수가 없군요.

질문 : 미리야나, 당신은 복되신 성모님께서 세계의 여러 다른 곳에 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리야나 : 아니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다른 곳에도 발현하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성모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겠군요.

질문 : 미리야나,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의 발현에 관해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리야나 :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질문 : 그것이 당신을 슬프게 합니까?

미리야나 : 네, 그런 일들은 몹시 슬픈 일들이지요. 그러나 저보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더 슬퍼하시겠지요.

질문 : 왜 성모님께서 더 슬퍼하실까요, 미리야나?

미리야나 : 글썽요. 성모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일은 없지만 저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받으셨던 것과 꼭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생



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셨습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오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지요. 성모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M**

<Visions of The Children /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에의 성모마리아에서 발체>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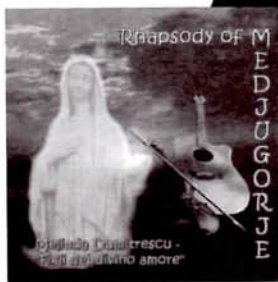


이 음악에는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성시간 노래와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들이 간단한 가사와 짧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

님께 흠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과 단체 성시간, 그리고 각종 피정과 교육시 유용한 음악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1 1/2 1/2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주요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데레사 (403-288-0469),

# 성모님이 지휘하시는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노선택 마리노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 단장

## - 첫 만남 -

2004년7월의 어느 여름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굵고 차분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짧은 순간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스쳐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에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런데 전화 속의 목소리는 분명 내 이름을 부르며 물으니 이젠 내가 대답할 차례다.

"네 누구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상대방의 예상 밖의 반응에 나는 수화기를 귀에 더욱 바짝 붙이게 된다.

"나야, 경남이 형~!" 단서를 잡았다. 내 머릿속 중앙기억 장치에 경남이란 이름을 빠르게 검색해 본다. 곧바로1건 검색되었다. '남경남' 제대 후 몇 개월 다녔던 회사의 직장상사. 그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작스레 전화한 상대방에게 우선 반가운 척 해본다. "어~! 경남이 형! 어떤 일이야~?" 하고 넉살 좋게 되묻는 사이 경남이 형의 고모가 옥수동 주민임을 기억해 냈다. 또한 경남이형이 옥수동 고모 댁에 와있음을 홀로 추측하고 다시 전화기에 귀를 대었다. 그런데 그 경남이형이 내게 어디있냐고 묻는다.

"옥수동 집에 가는 길이야." 그러자 경남이형도 옥수동에 있다고 한다. "어 그래? 고모님 댁인가?" 하고 물으니 "아니, 우리 집이야" 한다. 나 때문에 옥수동에 이사와 방 얻은 줄 알았다.

"어~! 축하해 경남이 형~!" 그러자 나보고 만나자고 한다. 갑자기 쫄끄러워지며 우리 동네에 이사 왔다는 경남이형이 부담스러웠다. 할 수 없이 "그럼 어디서 만나볼까?" 하고 대답했더니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한다. '점점 더 가관이네~!' 하며 경남이형의 뻔뻔함에 난감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할 수 없이 "형네 집이 어디야~?" 물었더니 진짜 황당한 대답을 한다.

"옥수동 성당~!"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옥수동 성당 다니는 줄 어떻게 알고 그런 장난을 쳤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아는 경남이 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옥수동 성당

에 새로 이사 온 경남이형의 정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이 아닌가! 내가 아는 '남경남'이 아니라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이셨던 것이다. 아이쿠, 맏소사... 청년회장도 아니고 직책도 없는 하찮은 본당 청년에게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미사 안 나오고 야간업소에서 연주했다고 꾸중하시려고 전화하셨나? 오! 하느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태어나서 처음 맞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벗어 날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을 닦으며 무조건 비는 수밖에... "아이쿠!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수화기가 떠나갈 듯 웃으시는 신부님.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내게 너무도 잔인했다. 그렇게 성모님은 신부님의 여정에 나를 끼워 넣으셨다. 마치 어미에게 뒷덜미를 물린 새끼 강아지처럼...

## -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의 출발 -

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두 줄짜리 단순한 악보를 내미시고는 연주하라고 하셨다. 신부님께서 주셨기에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 악보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 '예수 평화'였다. 처음 연주하려 모인 자리를 가보니 아는 얼굴 몇몇하고 낯선 얼굴이 몇 분 계셨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 역시 누군가의 작업에 의한 희생양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오르간, 바이올린, 플룻, 기타, 베이스 등 모인 악기들의 장르와 연령대는 매우 다양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연주를 하라 하시는 건지, 난감함의 연속이다. 그 당시 나는 야간 업소생활을 정리하고 각 파트에서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활동하던 동료들을 모아 'Soul Bro.' 라는 밴드를 결성해 강도 높은 연습 중이었다. (그 당시 나는 우리가 모인 것만으로도 다른 동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기대가 높았던, 또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가수들조차 탐내는, 데뷔하기 전부터 주목 받는 그런 팀의 리더였다.) 그런 내게 주임신부님의 요구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 악

보들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한 나는 불편한 마음을 접어두고 연습을 시작했으나 연주가 끝난 후엔 더 크고 깊은 심란함이 몰려왔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답답함과 암울함...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악기들의 역할 분담과 정리가 필요하고 각 파트별 장점을 살리면 좋은 음악이 될 것 같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발견했다. 특히 바이올린의 연주가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 깊어 다가왔는데 그 때 연주자는 바로 현재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의 대표 연주자인 '강호진 마리아'였다. 어린 시절 마리아의 어머니께서는 절두산 성지에서 어떤 분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마리아에게 바이올린을 잡게 하셨고 언젠가 마리아가 성장하면 절두산 성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게 마리아를 성모님께 봉헌하셨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이름까지 똑같은 마리아를 어여뻐 보셨는지, 2006년 6월 절두산 성지의 성시간에서 연주를 허락하시어 마리아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한 플루트를 연주하시는 자매님께서 노래 중간에 필요한 화음을 자유자재로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소리의 빈자리를 아름답게 채워주고 계셨다.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연주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늘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챙겨주시며 보살피주는 '서희선 글라라' 자매님이시다. 성모님께서 글라라 자매님의 솔직하고 담백한 플루트 선율에 예수님의 평화를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팀에서 묵묵히 키보드를 맡고 있는 '김수열 테레사'는 초등부 주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미사반주를 해오고 있고, 또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여 젊은 나이이지만 가톨릭 전례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음악 선교단에서 그 연주는 솔로 악기의 동반자가 되어주며 모든 악기를 감싸주는 공기 같은 존재다. 풍성한 소리의 선물은 테레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네 사람에게 분담된 역할을 바탕으로 한 우리는 2004년 9월 첫 성시간을 시작으로 서서히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의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와서 조용히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소리의 빈자리를 채워갔다. 그와 함께 연주를 하자 우리의 음악에는 중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연출의 다양함과 솔로 악기들의 효과가 증가하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 후에도 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타와 노래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성모님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송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적인 감성으로 작곡한 여러 노래들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음악 선교단의 중심에서 있는 그는 바로 '조승현 도미니꼬 사비오'이다. 주일 저녁 6시 미사에 성가대에서 유난히 용감하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성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친구를 결국 신부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가에서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듯이 신부님께서 '최유나 유리아나'를 낚으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옥수동 성당에서 성시간이 시작되고 몇 개월 후 신자들은 한 달에 한번 있는 성시간을 아쉬워하며 더 많은 성시간이 있길 희망하였다. 신부님께서 장년성가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음악 팀을 만들고자 하시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 중 손수 제작한 봉고를 가지고 온 '김옥락 다미아노' 형제님도 함께 연습에 참여하였는데 그 소리는 경쾌하고 매우 잘 어우러졌다.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다미아노 형제님은 과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바지와 통기타, 생맥주로 대표되던 70년대 젊은 시절 명동의 유명한 라이브 카페에서 연주하던 드러머이자 가수 남진 '의 라이브 밴드 멤버이기도 했다. 본당에서는 이미 오랜

## 우리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흠숭과 찬양을 드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기꺼이 쓰여 지는 성모님의 도구이다.

성가대 활동을 통해 다미아노 형제님의 음악성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특히 '툭'연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연주이며, 항상 인자로운 얼굴과 성품의 다미아노 형제님은 요셉 성인처럼 자상한 음악 선교단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 -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성모님 -

2004년 옥수동에 대림시기가 찾아왔다. 매년 하던 대림시기 특강과 피정 대신 대림4주년을 성시간으로 대체하지는 의견으로 한 달에 한 번하던 성시간을 매주 하게 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Soul Brothers와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사이에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다. 동료들은 내가 음악 선교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내 스스로도 시간과 노력을 나뉘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나는 8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매주 시간을 맞추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이 팀은 단기적인 행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팀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멤버들의 시간은 점점 더 규칙적으로 정착되어 갔고 성시간을 참석하고자 다른 여러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해가 바뀌자 성모님은 우리의 여정에 또 한 명의 준비된 사람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내주셨다. 현재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의 프로듀서인 '나복영 요셉'이다. 요셉은 학창시절부터 기타 연주로 주목 받던 재즈 뮤지션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North Texas 주립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던 요셉은 작곡가와 프로듀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미디 음악에 몰두하게 된다. 그는 고등학생이던 어린 나이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직후 먼저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순례 선배이기도 하다. 요셉의 합류로 우리는 자체 녹음이 가능해졌고 2006년 7월에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1집 '감사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다. 되돌아 보니 나복영 요셉과 조승현 사베리오(기타&보컬), 김수열 데레사(키보드)와 나(베이스)를 포함한 네 사람은 이미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과 밴드미사의 반주를 통해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그



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주임신부님이신 '송영준 비오' 신부님께서서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 오신 후 성모님 사랑에 푹 빠져 계셨고, 사목방침 역시 성모님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셨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러 오셨다는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은 그때부터 이미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음악 선교단의 활동을 위해 준비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 - 메주고리예로 우리를 불러 주신 성모님 -

시간이 흐르자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은 처음 출발 할 때의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았다.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의 손에 영광을 쥐어주신 성모님은 보다 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흠숭과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 우리는 신부님을 통한 성모님의 작업 중심에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나의 밴드 Soul Brothers와의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지금도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모임이 어찌면 그렇게 시원스럽게 깨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 당시엔 음악을 통한 무한한 도전을 꿈꾸던 나는 큰 상실과 절망감으로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과 신경남 신부님 원망도 많이 했었다. 한편으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마태오 19, 30)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계기가 되어 나는 성모님이 사장님으로 계신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말단 신입 사원이 되었다. 2005년5월 성모성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기도의 학교인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셨다. 음악 선교단은 먼저 나와 조승현 D. 사비오(기타&노래), 강호진 마리아(바이올린), 서희선 글라라(플룻&코러스) 자매님을 시작으로 성모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음악을 통한 기도와 사랑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순례 팀과 함께 성지를 다니며 성인들이 온 몸을 바쳐 증거한 가톨릭 신앙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매일 미사의 연주를 통하여 우리의 여정에 성모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메주고리예의 성시간 참례 후 우리는 음악을 통해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

리고 열게 하여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매일 저녁에 있는 성시간 음악 봉사자 '롤렌 파첼라이너'(기타&노래)와 '멜린다 두미뚜레스꾸'(바이올린 & 노래)의 겸손한 마음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훌륭한 연주와 노래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연주력만이 아님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업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시 가고 싶어지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수업시간이다.

### - 음악 앨범 '감사 예수'의 탄생 -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고 했던가! 음악 선교단의 연주력이 높아가자 소리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첼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늘 연습과 연주 후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투정을 부리곤 하였다.

그러자 우리의 사장님이신 성모님은 말단 신입 사원의 투정을 측은하게 들으셨는지 훌륭한 첼로 연주자 '연현승 유스티나'를 보내주셨고, 착한 마음과 깨끗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김유지 소피아'까지 덤으로 주셨다. 우연히 강호진 마리아의 차에 타게 된 연현승 유스티나는 연주를 통한 봉사로 다시 성당에 가고 싶은 자신의 뜻을 전하게 됐고, 마리아의 권유로 음악 선교단의 문을 두드린 겸손하고 용감한 친구다. 얌전한 외모와는 다르게 힘 있고 부드러우며 감미로운 연주는 소리에 대한 갈증을 깨끗이 씻어주었으며 이런 훌륭한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는 호시를 허락하신 성모님께 매번 감사를 드리게 만든다. 또한 덤으로 주신 '김유지 소피아'는 연습 전 시작기도 중 성모송을 바치던 목소리만으로도 예수님께 대한 흠숭과 겸손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또 설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모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김유지 소피아의 합류를 시작으로 우리는 앨범 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1년이 넘는 제작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작업은 기도와 화해였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로 직접 체험한 시간이기도 했다. 앨범 제작을 시작할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여 년 동안 함께 해온 나와 D. 사

비오, 요셉과의 분열을 시작으로 팀 내부의 불신과 불화가 싹텄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조그마한 틈이 있을 때는 특별히 가까운 주변을 통해 즉시 비집고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려 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진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시간만 흘러가니 목주를 잡은 손에서 힘은 점점 더 빠져만 갔다. 그러나 메주고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으로 우리 마음 안에 불신과 분열을 일으킨 사탄을 서서히 그러나 강력한 현존하심으로 물리쳐주셨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 하나로 일치되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 드리는 흠숭과 찬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앨범 '감사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경남 신부님은 예수님의 성광을, 우리는 각자의 손에 악기를 들고 성모님이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알렸다.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어머니 성모님의 사랑을 알렸다.

### - 우리들의 지휘자이신 성모님 -

가끔 음악 선교단의 단장으로써 '세상에 이런 음악 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러 밴드에서 활동을 하던 과거와 지금까지의 음악 선교단 활동을 비교하면 나도 모르게 온 몸에 소름이 돋곤 한다. 다양한 연령층과 너무도 다른 음악을 해온 사람들로 음악 팀을 만든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더구나 물질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시대에 아무 물질적 보상도 없이 매주 한번 이상 시간을 내어서 더구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인기를 먹고 사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장르의 악기들의 연주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주고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다양한 성격과 연령층의 단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또 하나의 가족들이 되었다. 성모님께서 세속의 음악을 연주하던 'Soul Brothers' 보다 영혼의 구원을 연주하는 'Soul Family' 를 선물로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평화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오시어 마음을 다해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숭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지휘 아래 이뤄진 일이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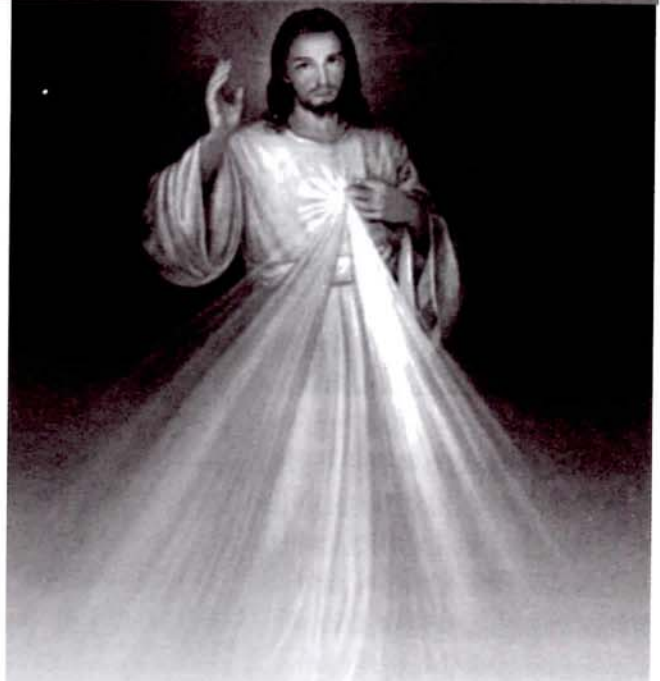
# 계획된 주님의 은총

정주원 요안나 / 서울 옥수동 성당 교우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 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제가 감히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드라마틱한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면서 어떻게 저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주 오랜 동안 종교생활을 독실하게 해온 사람들 중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제 딸을 통해 주님과 성모마리아님의 현존하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저의 딸은 약 2년 전부터 경련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이 먼저 세례를 받았으나 저의 가족은 몇 차례 동행하여 미사를 드렸을 뿐 냉담했었습니다. 어느 주일 우연히 성당 앞에서 스치게 된 주임 신부님의 "지금 예비 교리자 반이 진행 중인데..."라는 말씀 한 마디에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영세 받기 전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집에서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아침, 저녁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는 묵주기도를 딸아이는 거의 매일 밤 잘 따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본적인 기도문은 남편보다도 더 잘 외우고 잠자리에서 조금씩 읽는 성경도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약 한달 후 소아과에서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전의 2-3차례 검사결과와는 질환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1시간가량 딸아이가 검사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묵주기도 중 이번 검사 결과는 좋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고 그런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치의께서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4년 정도 예상했던 치료기간 보다 훨씬 단축된 것입니다. 그 순간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감격의 도가니 속에서 저희 부부는 세례를 받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생긴다는 대부대모의 말씀을 떠올리며 신앙의 신비를 우리끼리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진실한 마음이 아닌 말로 인정하고 2%정도는 그래도 2년간 치료한 결



과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은총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녀온 지 이틀 후 아침, 딸아이가 지난 밤 꿈을 꾸었다며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비가 왔고 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딸은 무서워 체격이 큰 친구 뒤에 숨었는데 목에 벼락을 맞고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떤 친구 한명이 딸에게로 와 "네가 벼락 맞을 때 하늘에서 어떤 아줌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모마리아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 마리아께서 주님께 빌어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 저희에게까지 성모님을 보내시어 당신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에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세례 전부터 지금까지 체험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받기 전 충실한 주님의 자녀이신 대부,모를 저희부부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과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신부님을 통해 주님과의 교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제 세례명의 의미가 됩니다. 제 세례명은 "야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의 요안나입니다. 가슴 벅찬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자비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M**



##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치유

박 세실리아 (산호세 한인성당)

자비하신 하느님,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제가 감히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의 지나간 삶의 뉘그러가 아닌 주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로운 성령 안에서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좋은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멘.

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따라 가끔 절에 갔는데 그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이나 지하도 앞에서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외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남편의 권유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으나 천주교의 교리도 모르겠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묵주기도는 더더욱 알 수 없어서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 몸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아이 따라 주차장만 돌아 오는 날도 있을 만큼 믿음과는 상관없는 발바닥 신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만 믿고 온 미국 생활에 적응도 안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한 교우 분이 성령대회 참석을 권했습니다. 아이가 어려 힘들었지만 본당에서 한다가에 참석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은 항상 조용하게 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던 저는 제대 앞에서 기타를 치고 울동을 하며 박수도 치고 손을 들라는 말에 도무지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거부감으로 오전 시간을 보내니 점심 먹은 것이 딱 체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치유시간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정작 암에 걸린 사람만 앞으로 나오라 해서 치유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고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속으로 '주님, 저는 암은 아니지만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하고 화살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멍치 끝에서 주먹만한 덩어리가 쑥 하더니 꾸불꾸불 창자를 통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던 속이 편안해지면서, 저는 그렇게 성령님을 처음 체험

했습니다. 그 후에는 대회가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고 제 손은 저절로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99년 봄 어느 날, 저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목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여 운전이 힘들 정도의 건강 이상을 느꼈습니다. 매년 피검사와 정기 검진을 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종합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달 후,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루페스'라는 것으로 성한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어 면역체계에 이상이 오는 난치병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각종 합병증이 올 수 있으며 몸이 피곤해도 안 되고 햇볕을 보면 더 악화하는 병이었습니다. 심한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으로 온 밤을 꼬박 새우곤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으며 힘든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의사가 시키는 대로 3개월마다 검진하고 약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다 다시 심해지는 피로와 새로운 증상은 고통스러웠고 이 모든 것이 루페스병에서 오는 증상인 줄 알고 참고 지내다가 2004년 가을 한국 서울 삼성병원에서 종합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입파선에 흑이 있다고 하며 그 동안 제가 앓고 있던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 와 바로 스펀포드 대학 병원에 입원해 다시 각종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동안 살아온 저의 지난 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쓰던 물건들과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암담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1월 중순경 메우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 남 그레고리오 회장님, 그리고 메우고리에 성시간 연주팀이 함께 하는 미주 순회 평화의 모후 음악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마지막 성체 강복 시간에 갑자기 뒷목과 왼쪽 어깨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성서 구절을 생각하며  
하느님께서 꼭 살려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심한 통증 때문에 앞자리에 있다가 맨 뒷자리로 와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신경남 신부님께서 제 앞까지 오셔서 성체 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 갑자기 통증이 제 왼쪽 어깨 끝에서부터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으며 그 때부터 그토록 심하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클랜드 성당에서 하는 음악 기도회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 때에도 신경남 신부님께서 제 앞으로 오셔서 어제보다 더 오랫동안 성체 강복을 해주셨으며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저녁마다 몇몇 성당 교우 분들과 함께 집에서 54일 묵주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묵주기도를 하고 성가를 부르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회를 사랑의 묵주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환자의 집이 아니라 매일 잔치집 다녀오는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MRI 결과에서 임파선에 있는 혹 두 개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며칠 후 혹이 없어졌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성서 구절을 생각하며 하느님께서 꼭 살려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교우 분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어갈 때 수술 날짜가 정해졌는데 바로 54일 기도 중 감사의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묘한 역사하심에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던 분들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니 많은 교우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묵주 기도 바치고 밤 12시가 지나도록 기다려서 9일 기도의 54일째 기도를 봉헌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비록 고통은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교우 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퇴원 하기 직전 칼슘 쇼크가 와서 제 몸은 주사바늘이 다 휘어질 정도로 모든 근육이 오그라든 진공팩 같이 되었습니다. 입이 굳어져 말도 못하고 심장이 조여와 숨이 막혀 죽음 직전까지 갔었으나 주님은 또다시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7주 동

안의 식이요법, 핵동위원소 치료 등의 모든 힘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밝은 빛을 볼 수 있었으나, 2%의 암세포가 남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 년이 되어가는 2005년 12월 중순 어느 날 아침에는 왼쪽 볼과 귀 밑이 많이 부어 오르고 통증이 심했는데,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침샘이 막혀서 하루에도 수 차례 이렇게 몸이 부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던 중 찰리 & 베리라는 미국 노인 부부를 모시고 하는 치유기도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그 날 이후 지금까지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차 치료를 위해 다시 3주의 식이요법과 각종 주사와 약으로 준비를 하고 3주 마지막 날 온 몸을 검사해보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오는 고통과 기쁨은 너무나 부족한 저를 수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드립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보시며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셨을 주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일본 일초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성서구절을 늘 떠올리며 보지 않아도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거의 7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사랑의 묵주 기도를 봉헌해준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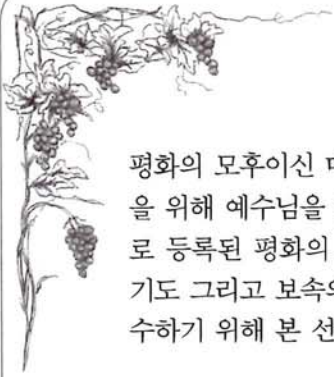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사놀(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보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부장** : 최성득

**편집위원** : 최 레지나, 황로사,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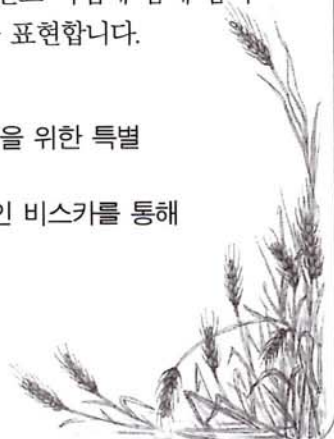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P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본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 년( ) 기타( ) 금액( ) 회원번호( )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인희, 강찬구, 권인섭, 공모니카, 김갑식, 김건일, 김경미, 김옥희, 김금덕, 김금성, 김금숙, 김대만, 김마테라, 김세록, 김요셉, 김명주, 김명희, 김봉희, 김사영, 김석수, 김은미, 김주희, 김정선, 김창성, 김충재, 김태자, 김호숙, 김학실, 김혜정, 김효정, 나웬디, 노마리아, 노영란, 문경자, 문방자, 민헬레나, 박금자, 박영희, 박혜선, 박혜정, 박프란체스카, 백안셀모, 송정순, 송정원, 손은아, 손마리아, 신알렉스, 심시몬, 신순덕, 신젤마, 안소영, 안소피아, 안요한, 안휘일, 양두영, 엄경숙, 엄봉화, 오경옥, 오글로리아, 오루시아, 유화연, 유광문, 유 바울라, 윤경만, 윤경이, 윤테레사, 윤은주, 윤정옥, 윤혜정, 윤희, 이 경, 이경성, 이마리아, 이명희, 이문자, 이미애, 이상집, 이순자, 이승화, 이윤우, 이윤영, 이인석, 이인영, 이정순, 이재문, 이재호, 이준모, 이크리스티나, 이한식, 이태순, 임주자, 장성치, 장지혜, 전득기, 전문자, 전분석, 전선희, 전연희, 전현숙, 정광선, 정명자, 정명좌, 정윤도, 정재향, 잔슨윤숙, 조은진, 조영선, 조은숙, 조은아, 조인영, 주혜경, 주태형, 지정해, 지현남, 최동원, 최두아, 최인숙, 최연호, 최윤희, 최형숙, 허윤영, 허정희, 한영애, 홍성옥, 홍연표, 홍용선, 홍제시카, 황계자, 황혜정, 황정애, 용마리아 수녀님, 윤종식 신부님, 형나 Fisher, U. Stafford, Sunghi Stiebel, H. of R.P, Peter Yu, Sung Hong, Michell Choe, Su Moran, Paris Hair & Nails, Heung C. Park, Y Sun Tom, Eileen Cho, Tak U. Lee, Lee Benedict, Y. Lee, Eilly S. Sunwoo, Mee R, K Larcenaire, Mrs Baker, Mary Clara Lee, Kim Joo D, Ui Leach, Anna H Lee, Myoung D. Yer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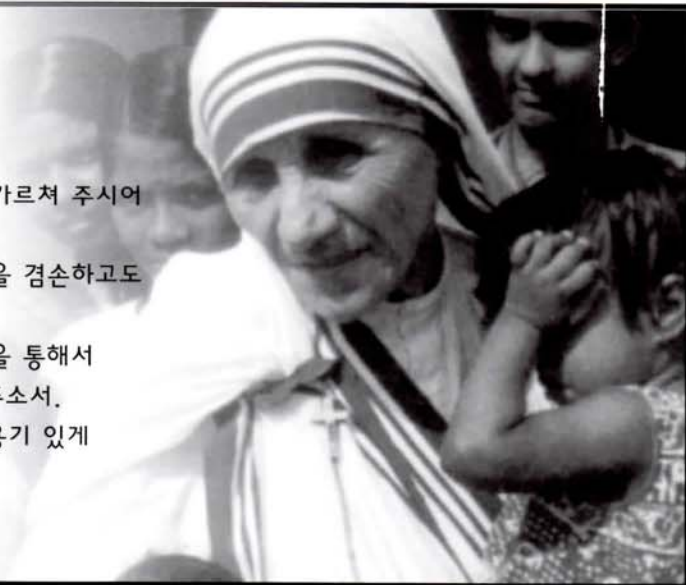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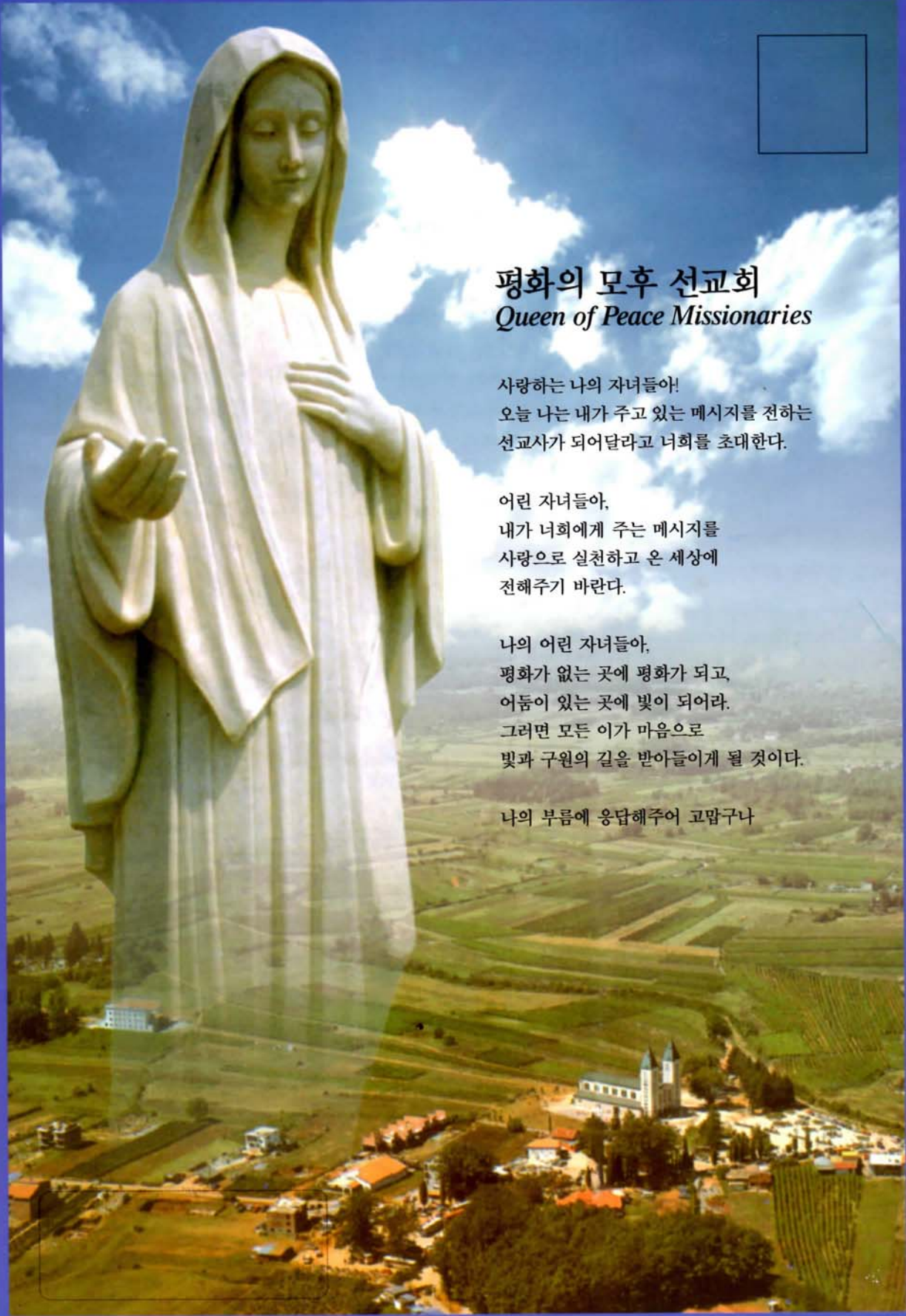
|                                  |             |
|----------------------------------|-------------|
| 37호 후원금(2006. 12.23 - 2007. 3.9) | \$11,440.00 |
| 지출 (37호 소식지)                     |             |
|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 8,270.00 |
| 통신비                              | \$ 610.00   |
| 교통비                              | \$ 540.00   |
|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 410.00   |
| • 지출 합계                          | \$9,830.00  |
| • 잔액                             | \$1,610.00  |



"십자가에 못박혔다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일상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은 인간 생활의 실패와 십자가의 고통을 겸손하고도  
 인내롭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더 잘 닮게 우리를 도와 주소서.  
 주님의 도움을 꼭 믿고, 인내로이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소서."

- 마더 데레사 -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취>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USA

### 최 레지나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KOREA

### 노선택 마리노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 이진영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